

고국의 봉우님들 새해에는 지금의 참담함에서 벗어나 벌과 함께 살아오셔서 벌과 같이 부기런해진 성품과 적극적인 삶의 태도로 보다 좋은 일들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고국을 떠나온지 벌써 7년이 지나가는 동안 이곳의 삶의 형태대로 항상 일에 매달려야만 했기에 작년 이맘때 급히 귀국길에 올라 서울 양봉협회에서 조속회양과 그리고 다른 여직원들만 만나보고 돌아왔을 뿐이어서 여러 봉우님들의 근황도 듣지 못한채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저의 일을 맡을 녀석이 학교에서 돌아와 시간이 나기에 제일 먼저 이곳의 양봉에 관하여 소식을 알려드리고 고국 양봉업계 소식도 듣고싶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동봉한 사진처럼 저는 1990년 이곳 미시간(Michigan)주 Lansing에 자리잡은 후, 이듬해에 이곳의 풍성한 밀원에 마음이 끌려 부업삼아 양봉을 시작했습니다. 시내 변두리에서 통당 70~80파운드(31.75~36.29kg)의 좋은 벌꿀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3년후 시카고로 이사 와서 사업장(세탁소) 옥상(약 90평)에 벌통을 놓고 몇몇 사람들에게 벌치기를 가르치며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보다 많은 교포들이 양봉을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어 미국 중서부의 이 평야주들에서 한인 양봉가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비행기 속에서 내려다 본 미국은 사막의 몇 주를 제외하곤 도시나 농촌이나 모두 푸른 숲에 둘러싸여 있어 어느 곳에 벌통을 갖다 놔도 이곳 시내 북부처럼 계상을

고국 봉우님들께 전합니다

미국 중서부의 양봉

시카고의 백 일 현 (MR. EL H. Baik6411 N Albany Ave Apt 102. Chicago, IL 60645-4147)

3~4개 이상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이곳의 기후는 마치 강원도 북부와 같으나 다만 짧은 봄과 가을이 다를 뿐이어서 4월 중·하순에 남부주에서 파운드벌을 받아 넣은 육아상(育兒箱)이 6월 하순부터는 계상을 연이어 얻어 놓다가 8월 말이면 채밀이 끝납니다.

이곳에서도 한국처럼 꿀벌응애로 인한 손실이 매우 커서 90년대 부터 작년까지 미국 봉군수의 3분의 1 이상이 감소하였기에 농산물 화분매개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하는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응애에 저항력이 강하다는 유고슬라비아종을 들여다 실험한 끝에 2년전부터 여왕벌을 분양을 했으나 저항력은 있되 수밀력의 열등으로 올해부터는 외면당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미국의 국제적 종봉연구가인 Adam 수사(修士)의 Buck Fast종과 개량 New World 코카시안 종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으며, 종봉업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저항력을 지닌 봉군 선별과 육종 등으로 그 빈자리를 매꿔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남미나 중국에서 수입한 벌꿀들이 슈퍼마켓을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 소비자들은 그 꿀

들을 그리 믿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제가 생산한 것을 품씨 좋아하고 있기도 합니다. 1파운드(0.45kg)당 US 3.50\$씩 비사게 팔고 있음에도 이곳 교포사회에서 모두 소비해 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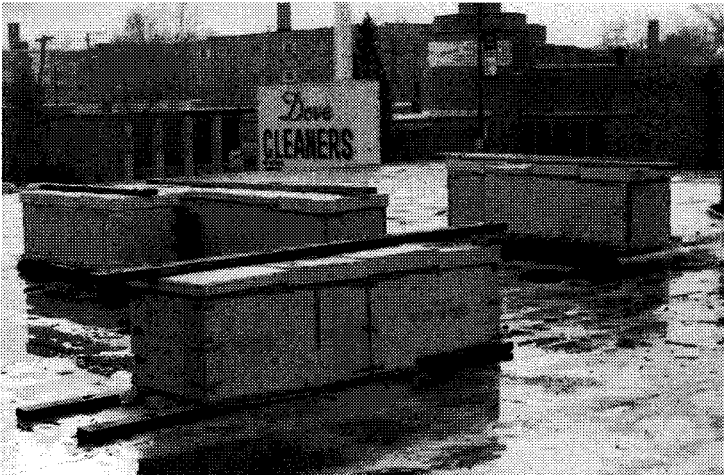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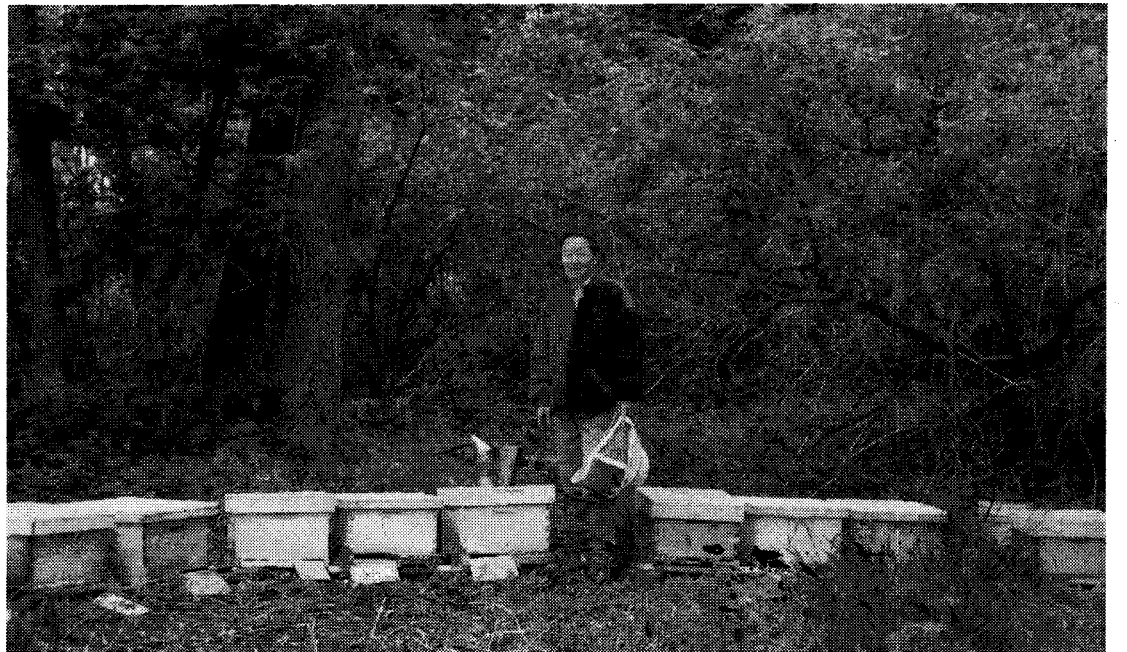
이곳은 워낙 밀원이 풍족한 곳이라 미국 양봉인들의 벌치기는 정말 영터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더욱이 양봉규모가 몇백통을 친다하여도 계상까지 합치면 대단한 봉군수이기에 양봉인들은 일일이 내검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풍족한 밀원에서 벌이 커가는데로 순응해 주면 되는 식이어서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8월하순에 모처럼 시간내어 네부리카주립대학에서 개최된

전문 양봉인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그곳의 Marion Ellis박사도 저의 옥상 양봉사례를 전해듣고는 놀라와 하면서 사진과 슬라이드용으로 원판을 부탁하길래 보내주었습니다. 도심 근처에 풍성한 밀원이 있음에도 벌 농을 장소를 구하지 못해 이용 못하는 실정에서 저의 경험사례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고 내년 강좌에 발표자료로 이용하겠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임박하여 편지도 달이 매우 늦을 것 같아 두서없이 글을 속히 써서 보내주고 보다 더 이곳의 양봉을 알고 싶어 하시는 봉우님들이 계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회보도 좀 보내주시시오.연락처는 공장전화 : 773-274-3365. 집전화는 이곳 낮 8~11시, 밤 9:50~11:00시 사이에 가능합니다.



'96 MMA 수입천연꿀 연내 소진판매 진통

96년도 MMA 수입 중국산 유채 꿀이 아직도 다 판매되지 못한채 300드림이나 남아있어 연내 소진 판매 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12월2일 농림부에서 연내 소진판매대책협의회를 열고, 잔량 300드림중 이미 오래전 모 업체가 120드림을 구매기로 축협과 계약된 후 계약업체 사정으로 오랜 기간동안 인수해가지 않은 물량은 축협이 책임지고 나머지 180드림

은 결국 양봉업계가 책임지기로 했다. 그래서 본협회가 90드림 절반을, 4양봉축협(한국·강원·전북·제주) 측에서 90드림을 분담키로 했는데 본협회는 배당받은 물량소화를 위해 회원업체 구매협조를 주선한 결과 16개업소에서 141드림의 구매신청물량을 채워 지난 12월말 축협에 이관했다.

한편 '97 MMA 수입예정분 캐나다산 잡화꿀 247.8톤(약 860드

림)이 지난 11월 부산항을 통해 통관돼 다음차례 수요처 공매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국제경쟁입찰 당시환율에 의해 kg당 2,005원에 사들인 것으로 계산됐던게 부산도착 검수통관후에 품대지불이 이행될 당시의 환율은 1달러당 1,123원으로 계산됨에 따라 수요처 판매예정가는 kg당 3,000원, 드림당 약 9십만원 선으로 보고 있다.

썬히타 전열판!!

형식승인번호 : 3-7-4613

- 니크롬선 제품이 아닙니다. ... 면 전체가 특수한 발열물질로 된 반도체바이오세라믹판입니다(원적외선 방출).
- 화재의 위험이 없습니다. ... 자기 스스로 온도를 제어하므로 이불속에 조절기 없이 넣어두어도 안전합니다. ... 따라서 벌통밀 내·외부 어느 곳에나 설치 가능하며, 외부밀에 깔면 더욱 편리함.
- 국내 유일의 양봉용 전열제품입니다. 전열판과 자동온도조절기 모두 형식승인을 갖춘 확실하고 편리한 제품입니다.

- ▶ 전열판 : 1장당 5,000원
- ▶ 자동온도조절기 : 1개당 50,000원(50군에 1개 필요) 1개당 90,000원(100군용 1개 필요)
- ▶ 우송료 : 전열판 50장까지 3,000원

부여밀봉원

(0463)836-1212 서울 : (02)536-2953

충남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96-1 대표 김수기 예금온라인 : 우체국 310375-0011817

첨단기술의 밀양소초

본원의 소초는 품질이 향상되었습니다. 한국 소초계의 정상을 달리는 본원 소초는 그 품질을 전국의 양봉인들이 보증하고 있으므로 유사품에 유의하시어 본원 제품인지를 확인한 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도 더욱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응봉저소초와 재래종소초도 생산발매

- 봉산물
- 봉기구
- 종봉

밀양양봉원

경남 밀양시 내이동 911(밀양우체국앞)

(0527)354-2572 · 53-5688 대표 박영순